〈 붙임 〉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

2012. 8. 16.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주요 국가별 對韓투자 동향 ····· 2

Ⅲ.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기본방향 ····· 6

Ⅳ.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 7

1. 핵심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 7

(1) 중국 ····· 7

(2) 일본 ····· 10

(3) 미국·EU ····· 13

2.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혁신 ····· 15

(1)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개선 ····· 15

(2)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및 차별적 요소 배제 ····· 17

Ⅰ. 추진배경

1 최근 미국·EU 등과의 FTA 효과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크게 개선되어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호조세

* 한-EU FTA 발효 후 11.3%, 한-미 FTA 발효 후 56.8% 증가('12.7월말 기준, 전년동기비)

○ 금년 1~7월 외국인투자 실적은 전년동기(62.3억불) 대비 34.0% 증가한 83.5억불로, 同期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기록

구 분	'08	'09	'10	'11	'11.1-7월	'12.1-7월	증감률(%)
신고금액(억불)	117	114.8	130.7	136.7	62.3	83.5	34.0

○ 다른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전년동기 대비) >

국가	미국(1-3월)	독일(1-5월)	중국(1-6월)	싱가폴(1-3월)	말련(1-3월)
증감률	△16.8%	1.3%	△2.9%	5.6%	△33.7%
국가	홍콩(1-3월)	베트남(1-7월)	러시아(1-3월)	브라질(1-6월)	영국(1-3월)
증감률	△1.3%	△2.1%	△7.6%	△10.3%	△35.6%

* 출처 : 각 국의 외국인투자통계 발표자료(순유입 기준)

2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외국인투자를 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11년 FDI누계/GDP (UNCTAD; %): 미국 23.2, 독일 20.0, 프랑스 34.7, 영국 49.8, 한국 12.5

○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상응하게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성장 및 고용기반 위축을 방지할 필요

< 우리나라 외국인투자-해외투자(순유입액* 기준) >

(단위:백만불, %)

구분	'02	'04	'06	'08	'10	'11
외국인투자(A)	3,399	8,997	4,881	8,409	8,511	11,870
해외투자(B)	2,920	5,643	11,175	20,251	23,278	20,355
A-B	478	3,354	△6,293	△11,842	△14,767	△8,465

* 순유입액 : 외국인투자 도착금액 - 외국인투자 회수금액

Ⅱ. 주요 국가의 對韓투자 동향

가 중국

1 對韓투자 동향

○ 아직 중국 본토로부터의 직접투자는 활발하지 않으나 홍콩을 경유하는 투자를 포함시 '11년 이후 대폭 증가 추세

* 중국정부의 자본규제 회피 및 선진금융시스템 활용을 위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형태 증가

< 중국 및 홍콩의 對韓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연도	'08	'09	'10	'11	'11.1-7월	'12.1-7월	증감률(%)
중국	336	160	414	651	237(3.8)	248(3.0)	4.4
홍콩	242	773	93	572	351(5.6)	685(8.2)	95.1
계	578(4.9)	933(8.1)	507(3.9)	1,223(8.9)	589(9.4)	933(11.2)	58.5

* 자료원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괄호는 전체 외국인투자 중 비중(%))

2 對韓투자 특징

①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레저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리조트, 콘도에 투자 집중

* 현재 진행중인 對中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제주도 관광·레저 관련 사업

② 임대보다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식 선호

3 향후 전망 및 과제

① 관광·레저분야의 투자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의 기술·브랜드에 대한 M&A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그러나, 관광·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에 편중되어 있고 중국의 對韓투자에 대한 한·중 양국의 부정적 인식은 투자확대의 걸림돌

나 일본

1 對韓투자 동향

○ 최근 엔고와 전력난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분위기 속에 한국투자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

* 일본의 해외투자 중 한국투자 비중(%) : ('07)1.7 → ('09)1.5 → ('11)2.1 → ('12.상반기)4.3

< 최근 5년간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추이 >

(단위 : 백만불)

분야	'08	'09	'10	'11	'11.1-7월	'12.1-7월	증감률(%)
전체	1,424	1,934	2,083	2,289	966	3,011	211.7
부품소재	621(90.7)	1,110(94.2)	1,160(94.6)	1,199(94.8)	376(89.1)	1,491(91.0)	296.1

* 자료원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괄호 안은 제조업 투자 중 부품소재 비중(%))

2 對韓투자 특징

① 국내대기업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 화학 등 부품소재분야 투자가 활발

* 부품소재 국내생산이 확대되면서 對日수입의존도는 23.0%로 사상최저치 기록('12.상반기)

② 리스크 경감을 위해 부동산(부지, 건물) 임대를 통한 투자 선호

*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리로 부동산 매입에 소극적

3 향후 전망 및 과제

① 당분간 對韓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美와의 FTA 비준과 한-중 FTA 추진에 따라 일본 수출기업의 관심 증가

② 그러나 투자수요 증가에 비해 일본기업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형 입지가 부족하여 투자수용에 한계

* 국가산업단지 중 임대단지 비율은 1.45%로 낮은 수준(한국산업단지공단)

≪ 참고 :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 분석 ≫

1 전반적 동향

○ 6重苦(엔고, 전력난, 높은 법인세, 대외개방지연, 노사문제, 환경문제)로 인해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

< 일본의 해외투자 및 對韓투자 동향 >

(단위 : 억불)

구분	'07	'08	'09	'10	'11	'12.상반기
전체	734.8	1,308	746.5	572.2	1,157.3	598.2
한국	13.0(1.7)	23.7(1.8)	10.8(1.5)	10.8(1.9)	24.4(2.1)	25.8(4.3)

* 자료원 : JETRO 통계(송금기준, 국제수지기준, 괄호는 전체 해외투자 중 비중(%))

2 주요 투자대상국별 투자 동기

투자 대상국	투자 비중 ('07~'11, %)	투자 동기	투자 사례
미국	23.2	현지시장진출형 첨단기술확보형	미쯔비시 UFJ, Morgan Stanley 지분투자(은행) 다이니폰스미토모, Boston Biomedical 인수(제약)
EU	22.3	현지시장진출형 첨단기술확보형	도요타, 영국에 생산공장 설립(자동차) 타케다, 스위스 Nycomed 인수(제약)
호주·중남미	22.7	자원확보형	미츠비시, 칠레 AngloAmerican Sur 인수(광산)
중국·동남아	15.4	저임금활용형 수출시장거점형	캐논, 태국에 카메라 생산공장 설립(전자) 닛산, 중국 동풍자동차 지분투자(자동차)

* 자료원 : JETRO 통계(송금기준, 국제수지기준)

3 최근 일본의 對韓투자 증가 원인

① 그간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 높은 임금, 선진기술 부족 등으로 일본기업의 對韓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 최근 5년간('07~'11) 일본의 對韓투자는 전체 투자의 1.9%로, 동기간 일본의 전체 수출액 중 對韓수출액 비중(7.9%)에 비해 매우 낮음

② 최근 FTA 효과와 차이나리스크 부각, 한국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향상, 입지경쟁력 증가* 등으로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 법인실효세율(%) : **韓** 24.2 **日** 40.7 / 산업용전기요금($/kWh) : **韓** 0.058 **日** 0.158

다 미국 · EU

1 對韓투자 동향

○ 미국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EU는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부진

< 최근 5년간 미국·EU의 對韓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지 역	'08	'09	'10	'11	'11.1-7월	'12.1-7월	증감률(%)
미국	1,328	1,486	1,974	2,372	1,179	1,561	32.4
EU	6,339	5,297	3,196	5,032	2,476	1,691	△31.7

* 자료원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2 對韓투자 특징

①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로는 對韓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美 : ('11.3.15~'11.7.31) 8.6억불 → ('12.3.15~'12.7.31) 14.7억불(71.9% 증가)
* EU : ('10.7.1~'11.7.31) 42.7억불 → ('11.7.1~'12.7.31) 46.8억불(9.6% 증가)

② 금융, 유통,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서비스분야와 전기전자, 화공 등 첨단 제조업분야에 투자 집중

3 향후 전망 및 과제

①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대체투자 수요 증가와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북아거점 설립을 위한 對韓투자 가능성 증가

* 미국의 경우 최근 셰일가스, 달러약세로 인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어 투자여력이 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對韓투자 확대 전망

②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식서비스분야 투자 확대 예상

③ FTA를 계기로 조성된 美EU와의 협력분위기를 투자분야로 확대 필요

Ⅲ.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1 중국, 일본, 미국·EU 등 핵심투자국의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

【1】 중국

○ 관광·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자본 유치 추진

【2】 일본

○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투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대형 입지 공급 확대

○ 美·EU와의 FTA를 활용하여 수출형·합작기업(JV)형·신성장산업 등 전략분야에 대한 유치 노력도 강화

【3】 미국·EU

○ FTA 효과를 활용하여 동북아 거점형·지식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확대

○ 한-미 FTA를 계기로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투자분야로 확대

2 아울러, 외국인투자 지원체계를 혁신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서비스 質을 획기적으로 개선

Ⅳ.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1 핵심국가별 맞춤형 유치전략 추진

【1】 중국

◇ 관광·레저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개선 지원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자본 유치 추진

가 관광 · 레저단지 조성시 중국자본 유치 활성화

1 **(복합리조트 內 투자유치)** 사전심사제 도입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복합리조트* 내 관광·레저시설 투자유치 하반기 중 성사

*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

※ 관련 제도를 9월중 완료,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심사결과 통보

2 **(투자지역 다변화를 위한 사업성 제고)**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강구

○ **(투자이민제도 확대)** 중국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에 투자이민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 검토

※ 현재 제주, 여수(대경도), 평창(알펜시아), 인천(영종지구) 등 4개 지역에 실시 중

○ **(자본재 범위 확대)**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핵심 자본재 규정 신설을 통해 관세 감면 지원 검토

※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1차2차산업의 자본재에 한해 관세 감면

○ **(인센티브)**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저분야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및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도로·전기 등 공공인프라 지원

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자본 유치

◈ 국내 우수기업의 기술·아이디어와 중국기업의 자본·유통망 결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전략(Made WITH China) 추진

< 중국의 투자를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사례 >

분야	협력 내용
소비재	○ 中 푸싱그룹, 그리스 폴리폴리社 지분 9.5% 인수('11.5) – 폴리폴리社(고급 액세서리)는 푸싱그룹의 입지정보를 활용하여 중국내 100여개 직영점 운영, 3년 내 250여개로 확대 계획
자동차 부품	○ 中 닝보윈성社의 일본 닛코전기社 지분 80% 인수('10.6) – 닝보윈성은 고급 기술 확보, 닛코전기는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 공략

1 **(중점유치분야)** 중국자본 관심분야 및 중국시장 진출 희망분야 기업

분야	주요 내용
IT·벤처기업 (게임, SW 등)	기술력이 높으며,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벤처분야 기업
프랜차이즈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자동차부품	중국기업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부품소재분야 국내기업 중 중국 재무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2 **(전략적 투자유치)** 중국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수요 발굴 및 중국 재무적 투자가 대상 IR 개최

○ '13년까지 중국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100개 국내기업 발굴

※ 중국자본 유치 희망 국내기업 발굴 : 現) 10개 → '12년말) 40개 → '13년) 60개

○ 中 투자촉진국과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재무적 투자가 발굴

* 중국의 對韓투자 확대를 위해 (中)투자촉진국과 (韓)KOTRA 간 투자협력 MOU 체결('12.5월)

○ 중국 순회 IR을 통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국 전역의 對韓 투자 붐 조성(10월 중부/상하이, 11월 남부/광저우, 12월 북부/베이징)

3 **(공동 투자)** 중국기업의 對韓투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을 위해 旣 조성된 「외국인투자촉진 펀드*」를 활용, 공동 투자

* 한국정책금융공사(70% 참여)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11.11월)

○ 수요 증가시 韓·中이 공동 참여하는 「한중 투자협력 펀드」 조성 검토

* 例) 中 투자공사와 韓 정책금융공사 등이 참여, 국내 운용사가 펀드 운용

다 중국 제조기업의 한국 투자유치 기반 조성

◈ 한국의 FTA 네트워크 및 기술·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중국 제조 기업의 투자수요에 대응

1 **(중국인력 고용지원)** 중국 투자기업의 對韓투자 애로사항 중 하나인 중국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재고용 적극적 허용

2 **(입지 지원)**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및 부품소재전용공단(단지형 외투지역)내 입주 유도. 필요시, 중국기업 전용공단 조성도 검토

【2】 일본

◇ 일본 부품소재기업 입지수요에 대응한 임대형 입지공급 확대

◇ 수출형·합작기업(JV)형 등 전략분야 투자유치 노력 강화

가 부품소재기업 입지수요 대응 임대형 입지공급 확대

1 **(대규모 전용공단)** 집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본기업 선호지역에 대규모(33만㎡ 이상)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조성

○ 투자수요를 고려하여 하반기 중 1개의 전용공단을 신규 지정하고 '15년까지 현재(4개)의 2배(8개)로 확대

2 **(미니 산단)**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기업을 위해 국내 기업 인근 지역에 小규모(5~10만㎡) 단지 조성

* 對韓투자 결정 요인(KOTRA 설문조사, '12.6월) : 수요대기업 납품 및 내수시장 진출(42%)

○ **(지원기준)** 비수도권 지역, 투자 수요(면적 대비 60%이상 투자신고), 인근 국내기업 납품 관계,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시범사업)** 미니산단 수요 및 활용 가능 입지 등을 고려하여 1~2개 시범사업 후 확대 추진('13년)

※ '12년 하반기中 지자체 및 대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 **(지원방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 완화 : 現)33만㎡이상 → 改)제한적 5만㎡이상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

※ 부지매입비 분담비율(국비:지방비) : (수도권이외의 지역) 50:50

나 전략분야에 대한 유치노력 강화

1 수출형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

○ **(수출 중소기업)** 자유무역지역(임대부지)에 적극 유치

- 부지 여유가 있고 일본기업 투자문의가 많은 동해·울산 자유무역지역 등에 표준형공장(현재 23동)을 대폭 확대하여 임대 지원

< 자유무역지역 입주 현황('12.6월) >

(단위 : 천㎡)

구분	총면적	임대	입주율	잔여	구분	총면적	임대	입주율	잔여
마산	796	796	100%	-	율촌	268	77	29%	191
군산	1,082	1,022	94%	60	울산	720	'12.8월 개원 예정		
대불	1,006	986	98%	20	김제	852	〃		
동해	193	21	11%	172					

○ **(수출 대기업)** 공항·항만 인접지역인 경제자유구역 또는 개별형 외투지역을 지정하여 유치

2 국내기업과의 합작(JV) 투자 촉진

○ **(인센티브)** 기술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과의 합작(JV)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현금지원 등 우대

※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국내기업의 합작지분이 50% 이상시 지원 우대

○ **(규제완화)** 국내기업과 합작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결합 규제 개선 추진

3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 인천 송도에 대한 바이오 분야 日기업의 투자 관심이 증대

○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강구

-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내 「바이오 공동 실험센터*」 구축사업 지원(3공구 또는 2단계 조성사업)

* 바이오 유관 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 및 기자재 구비

- 외국대학 관련학과 및 연구기관 유치 확대를 통해 우수인력 공급·연구·개발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4 국내 동반진출형 투자 적극 지원

○ 일본 글로벌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개발 지원

- 맞춤형 투자입지 정보제공, 산업단지 개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인프라설치 지원 등

* 외투기업이 직접 산단개발시 토지수용 특례 부여 등

** 임대방식이 아닌 자가소유 형식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절차 마련

【3】 미국 · EU

◇ FTA 활용하여 동북아 거점형·지식시비스 분야 투자유치 확대
◇ 한-미 FTA를 계기로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투자분야로 확대

가 거점형 · 지식서비스 분야 집중 유치

1 **(R&D센터)** 고급인력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 R&D센터 적극 유치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 중점유치대상인 10개 기업(GE, AMAT, SAP, Bayer, Albermarle, Celgard 등) 집중관리 및 현금지원 한도 확대

※ 현금지원 한도 확대 : 現) FDI의 최대 30% → 改) 최대 40%

2 **(생산 거점)** FTA 효과를 활용하여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생산기지 유치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현금지원(Cash Grant)시 우대

3 **(IT산업)** 스마트·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 기업 유치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및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4 **(지식서비스)** IT융복합 서비스(u-Health, 3D 콘텐츠, u-City 등), 스마트 그리드 등 고도기술 산업분야의 선도기술 기업 유치

○ 서비스 핵심 솔루션 기술 등 국내 취약분야에 인센티브 우선 지원

나 한 · 미 양국간 투자협력 분위기 조성

1 FTA 체결을 계기로 조성된 韓·美간 협력분위기를 투자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반기 집중 추진

① 「韓·美 투자협력 포럼」 개최 추진 ('12.11월)

- 양국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민간기업간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 例) 미국 商議중국 CCIEE(국제경제교류센터)와 공동으로 투자협력 포럼 개최(7.17~19, 베이징)

② 국내 旣 진출 美 글로벌기업 대상* 증액투자 설명회 개최

  * 포춘지 500대 기업에 속하는 미국 기업 132개 중 對韓 투자기업은 61개

- 駐韓 商議인 AMCHAM과 투자협력 확대 방안 논의(9.5)

2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美 글로벌기업 간 투자협력 촉진

○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 공동 R&D, 해외시장 개척, 판로 확보 등의 기회 제공(GAPS사업 등)

2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혁신

【1】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체계 개선

가 KOTRA(IK)의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 확충

1 **(e-IK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외국인 투자 행정처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온라인 외투 서비스 기반 구축

○ 투자가가 해외에서도 국내투자 시 필요한 관련절차를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완비('13 ~ '15년)

※ e-IK 구축 계획: ('13년) 신고·등록, 상담 → ('14년) 인센티브 → ('15년) 인·허가

2 **(코트라(IK) 민원사무 처리범위 대폭 확대)** 관청방문 없이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행 및 직접처리 사무를 대폭 확대

○ **(대행 민원사무 확대)** 코트라가 접수, 대행하는 업무 범위를 현행 인허가 중심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절차 전반으로 확대

  * 외촉법·조특법 시행령 개정(현금지원·조세감면 신청을 KOTRA에서도 접수)

○ **(직접처리 사무 확대)**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사무를 법인 설립 등기, 기술도입계약 신고와 생활민원사무 등까지 확대

※ 파견관 확대(출장등기소 설치 등) 및 외촉법 시행령(별표3) 개정

○ **(지자체 인허가 대행처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IK 파견관 역할을 강화하여 지자체 권한인 각종 인·허가 절차 대행 처리 활성화

※ **(현행)** 안내·상담업무 위주 → **(개선)** 인허가 대행처리 등 업무 강화

< KOTRA IK의 원스톱 서비스 범위 확대 >

	현행	⇒	개선 후
대행 사무	⇒ 공장설립 등 인허가 (10개 일괄처리·97개 개별처리 사무)	⇒	인센티브 등 행정절차 전반으로 확대
직접 처리	⇒ 비자, 사업자등록, 출입국관련서비스 등 11개 사무	⇒	법인설립 등기, 기술도입계약 신고, 생활민원 등 추가

3 **(외국인투자전담관(PM) 제도 강화)** 투자 탐색단계부터 국내정착 단계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1:1로 전문적인 밀착 서비스 제공

○ 주요 신규 투자 및 증액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전담 PM 지정

* **(현행)** 유치부서 PM은 유치만 담당, 사후관리부서 PM은 전문분야만 담당
(개선) 중요 프로젝트(예: 제조업 3천만불)에 대해 투자유치부터 국내정착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 PM을 지정

○ PM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PM 성과급 체계를 개선

※ 현행 IK PM (32명) → IK 기능 개편(현장·활동 중심) 및 전문 PM 충원(~'13년上)

※ PM 성과급 체계 개선: (현행) FDI 신고액 → (변경후) FDI신고·도착액·사후케어 등

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지원 기능 강화

1 **(지자체·IK 공동 PM 활성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PM'을 지정하고 지자체 권한인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원

2 **(지자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도입)** 지자체 권한과 관련된 입지, 조세, 인허가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이 많은 서울, 경기도, 충북, 경북 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로 확대

다 국가경제·투자정보 등 체계적인 해외홍보 강화

□ 한·미 FTA 발효 이후 제고된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해외 경제·투자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對韓 외국인투자 분위기 조성

*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강화가 외투확대의 초석임

○ 아리랑 TV 등 해외홍보방송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의 전반적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기회에 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하반기 중 시범 홍보방송 실시

【2】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및 차별적 요소 시정

가 인센티브제도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 인센티브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외투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 활성화)**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투자 신고 前단계에서 조세감면 여부를 판정해주는 제도의 활용을 촉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에 旣도입

○ **(고도기술 중간심의 결과 공지)**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 심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외투기업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완화

* 고도기술 심의절차: 기재부(신청 접수) ⇒지경부(중간심의) ⇒기재부(최종결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6조 개정 필요

나 정책 집행과정의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의 시정

□ 정책집행 과정상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의 발굴 및 시정 유도

○ 옴브즈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사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보고

○ 영문 보도자료 배포 등 주요정책 정보에 대한 외투기업 접근성 제고

참고 주요국의 해외투자 동향

1 **(중국)**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Go Global, 해외투자정책) 전략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 확대 추세

< 중국 및 홍콩의 해외투자 동향 >

(단위 : 억불)

연도	'07	'08	'09	'10	'11(추정)
중국	265	559	565	688	700
홍콩	611	506	640	761	800
계	876	1,065	1,205	1,449	1,500

* 자료원 : 중국 상공부, UNCTAD

○ 최근 자원·에너지, 기술·브랜드 획득을 위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우량기업에 대한 M&A 투자 증가세

* 例) 중국국가전력망공사는 포르투갈 국영 발전회사인 REN을 3.9억불에 인수('12년)
팡다자동차는 스웨덴의 자동차회사 SAAB를 1억유로에 인수('11년)

2 **(일본)** 최근 엔고와 전력난으로 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부품소재 등 기술집약 산업까지 해외진출 가속화

< 일본의 해외투자 및 對韓투자 동향 >

(단위 : 억불)

구분	'07	'08	'09	'10	'11	'12.상반기
전체	734.8	1,308	746.5	572.2	1,157.3	598.2
한국	13.0(1.7)	23.7(1.8)	10.8(1.5)	10.8(1.9)	24.4(2.1)	25.8(4.3)
중국	62.2(8.3)	65(5.0)	69(9.1)	72.5(12.7)	126.5(10.9)	71.7(12.0)
미국	156.7(21.1)	446.7(34.2)	106.6(14.2)	91.9(16.1)	147.3(12.7)	162.7(27.2)
EU	199.3(27.1)	229.4(17.5)	170.4(22.8)	83.6(14.6)	360.5(31.2)	129.6(21.7)

* 자료원 : JETRO 통계(송금기준, 국제수지기준, 괄호는 전체 해외투자 중 비중(%))

3 **(미국·EU)**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해외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미국, EU의 해외투자 동향 >

(단위 : 억불)

	'07	'08	'09	'10	'11	전년比증감
미국	3,935	3,083	2,827	3,289	3,838	16.7%
EU	5,507	3,835	3,165	1,456	3,699	154.1%

* (美)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EU) eurostat 보고서